

전남 조직개편안 확정...문화융성국 등 신설

도민 불편 해소·권역별 경쟁력 강화·균형발전 방침 김영록 지사 "도의회 의결 감사...대도약 성과로 보답"

글로벌 도정을 표방하는 전남도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 실현'을 기치로 새롭게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도의회에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동부지역본부 4개 실국 체제로 재편하고, 민선 8기 글로벌 도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에 중점을 뒀

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관광문화체육국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관광체육국과 문화융성국으로 분리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관광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해사. 문화 관련 업무 역시 영상콘텐츠, 웹툰, 애니메이션, 스포츠 등 급속히 커지고 있는 문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융성국을 설치했다. 대학지원체계를 개편한 정부방침에 따라 관련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대학지원팀을 대학혁신추진단(TF)으로 확대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라이즈·RISE)와 글로벌 30 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설한 '균형성과담당관실'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도내 시·군의 고른 발전을 함께 이끈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개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2급 본부

장을 새롭게 승인받았다. 3급에서 2급으로 격상된 동부지역본부장은 소관 실국을 총괄·조정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신속한 결정 권한을 갖는 등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준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해 그만큼 도청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뛰여 도민 행복과 전남 대도약의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호 기자

'수돗물 단수 엄중 대책' 광주 시 감사위, 22명 징계 요구

지난 2월 광주지역 수돗물 단수 사태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 처분서를 통해 중징계 1명·경징계 21명 등 소속 공무원 22명을 징계하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했다. 이는 민선 8기들어 가장 많은 징계 요구 인원이다.

오는 23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감사위는 이달 말 구체적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계획이다. 감사위는 지난 3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에 감사를 설치, 단수사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다.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많은 양의 수돗물이 유실되는가 하면 수돗물 공급중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집중 감사였다.

감사위는 특정감사 기간 수돗물 사고 원인과 노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재난안전 문자전과 적정 여부, 긴급복구 적정 여부, 노후시설물 개량 계획, 사고 행동매뉴얼 적정성 등을 들여다 봤다. 당시 감사위는 덕남정수장 송수관 밸브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 문제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 서남권 8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하고 있다. 278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 서남권 6개 시·군 활성화...2800억대 투자유치

8개 기업 협약...관광·첨단전략·수산업 활성화 탄력

전남도가 서남권 6개 시·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서남권 8개 기업과 '첨단전략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278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8개 기업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김성 장흥군수, 김성훈 무안군수, 이상의 합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유한강개발은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 삼향읍 왕산리 일원에 2026년까지 752억원을 투자해 리조트를 건설한

다. 또 경보건설(주)은 완도군 신지면 일원에 1027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한다.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투자유치도 이뤄졌다. '바다씨푸드'는 장흥 바이오산단에 2024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 자숙포파살 생산시설을 준공한다. '박수소금류'도 2024년까지 137억원을 투입해 영광군 덕호리 일원에 벗질가마니 3년 숙성 천일염 제조장을 구축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 투자도 이뤄진다. '쥬세원하드페이징'은 2024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목포 세라믹

산단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분말을 제조한다. 또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 '동진기업(주)'과 '쥬제이케이베스트', '쥬정테크놀로지'는 합평빛그린산단에 입주한다. 이들 기업은 각각 560억원, 69억원을 투자해 원통형 이차전지 설비 제조 시설과 이차전지 조립설비용 부품 가공 제조라인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서남권 신활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고속도로)'과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도입' 등 사물팔달 교통망 확충을 통해 투자할 맛 나는 전남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호 기자

시,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직접 운영 교육관 운영 조직 구성 논의 중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내부 검토 끝에 교육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광주시는 교육관을 운영할 조직 구성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직영 방침을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교육관 민간 운영 단체로 5·18부상자회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뒤 재공모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재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단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광주시는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그 동안 광주시는 재공모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 등을 놓고 회의와 검토를 이어갔다. 지난 달 15일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5·18교육관 민간 위탁 재공모 과정에 강 시장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광주시는 5·18교육관 민간위탁 단체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며 공정·투명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주 기자

'모빌리티·뿌리산업·가전로봇' 통합전시회 광주서 29일~7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300개사 참가

신기술·신제품을 한 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업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대표산업인 모빌리티·뿌리산업·가전로봇분야 미래산업 전시회인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를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코트라(KOTRA)·(재)광주그린카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한다. 그린카 전시회·뿌리산업 전시회·IoT가전로봇박람회 등 그동안 개별 전시회로 열던 것을, 올해부터

는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로 통합 개최한다. 전시품목은 완성차·자율주행차·자동차 소재부품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14대 뿌리기술·가전·드론·로봇 등으로 300개사 500부스 규모이다. 관련 제품과 기술 전시·기술세미나·수출상담회 등 다채롭게 진행한다. 특히 광주시 통합홍보관은 자율주행기술·스마트팩토리·스마트금형·광주가전공동브랜드(GIEL) 등 광주를 대표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채워진다. /권형안 기자

도-9개 공공기관, 전국체전 성공개최 힘 모은다 안전·홍보·인적물적 자원 지원 공동협력 다짐

전남도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9개 공공기관과 힘을 모은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9개 공공기관과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홍보·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이동길 해군3함대 사령관 등 9개 공공기관장(지부장)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은 도교육청, 전남경찰청, 해군3함대, 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 등이다.